

대학 취업지원부서의 인식을 통해 살펴본 대학-지역기업 간 연계를 위한 과제

- 전국 일반대학의 취업지원부서는 예산 및 인프라의 부족, 지역 기업체에 대한 정보 부족 등을 대학-지역기업 간 연계의 주요 애로 요인으로 인식함.
- 취업지원부서는 대학-지역기업 간 원활한 연계를 위해 대학의 전담인력 및 조직 확충, 지자체 차원의 기업 정보제공 기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인식함.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 참여교는 사업의 취지에 맞게 지역고용센터, 지자체, 지역기업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으며 미참여교에 비해 지역 기업체에 대한 조직의 이해 수준, 대학의 지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본 연구 결과는 대학-지역기업 간 원활한 연계를 위해 대학 취업지원부서의 조직 역량 강화와 대학 및 지자체의 지원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01 분석의 필요성 및 분석 자료

| 주 |

이 글은 민숙원 외(2022).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지역 일자리와의 연계를 중심으로.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 4장 일부 내용을 재구성함.

| 각주 |

1) 고용노동부에서는 대학의 진로지도 및 취업 지원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일자리센터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1년부터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이 종료되는 대학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대상 및 기능을 확대하여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을 추진함(고용노동부, 2023). 2022년 기준 116개 대학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을 수행함(청년워크넷, 2023).

- 최근 대학의 지역 인재양성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지역 내 유관기관 간 상생협력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역의 위기 극복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면서 대학과 지역기업과의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는 추세임.
- 그간 대학은 학생들의 성공적인 입직을 위해 진로 및 취업지원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취업지원부서를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왔음.
- 이 글에서는 대학-지역기업 간 연계에 있어서의 애로 요인, 대학 조직의 역량, 대학 및 지자체 차원의 지원 요구를 대학 취업지원부서 담당자의 인식을 통해 살펴보고, 고용노동부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¹⁾'의 참여 대학과 미참여 대학 간 인식 차이가 있는지 알아봄.

| 분석 자료: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지역 일자리와의 연계를 중심으로(2022)」에서 수행한 대학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자료

- 분석 대상: 전국 일반대학 중에서 취업지원 부서를 운영하는 185개 대학의 취업지원부서 관계자(부서장, 팀장, 실무자 등) 중 설문에 응답한 133개 대학 관계자
 - 대학일자리(플러스)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 중인 대학 75개교와 사업 미참여한 58개교를 포함함.
 - 종교 관련 단일학과를 운영하는 대학은 제외하였으며, 조사대상자는 1교당 1인을 선정함.
- 분석 내용: 대학 취업지원부서 담당자가 인식하는 대학-지역기업 간 연계의 애로 요인, 대학 조직의 역량과 대학 및 지자체 차원의 지원 수준에 대한 인식을 5점 척도로 조사함.



02 대학 취업지원부서의 주요 소통 대상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 참여교의 경우 미참여교에 비해 지역기업을 포함한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업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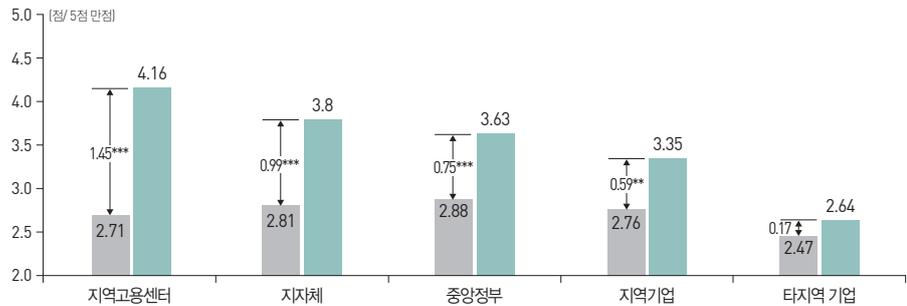
- 일반대학 취업지원부서의 주요 소통 대상은 지역고용센터(3.53점/5.0점 만점), 지자체(3.37점/5.0점 만점), 중앙정부(3.30점/5.0점 만점), 지역기업(3.09점/5.0점 만점) 순으로 나타남.

〈표 1〉 대학 취업지원부서의 주요 소통 대상

구분	평균	표준편차	긍정응답률
지역고용센터	3.53	1.19	55.6
지자체	3.37	1.06	51.9
중앙정부	3.30	1.14	46.6
지역기업	3.09	0.97	33.1
타지역 기업	2.56	1.00	17.3

주 | 긍정응답률은 '실행되는 편임' 또는 '매우 잘 실행되는 편임'에 대한 응답 비율을 합한 수치임.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 참여교와 미참여교의 유관기관과의 소통 수준을 비교해보면, 사업 참여교가 미참여교에 비해 중앙정부 및 지역의 유관기관(지역고용센터, 지자체, 지역기업)과 활발하게 소통하는 것으로 나타남.



주 | ***p<.001, ** p<.01

〔그림 1〕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 참여 여부에 따른 유관기관 소통 수준

03 지역기업 연계의 애로 요인

대학의 취업지원부서는 지역기업 연계의 애로 요인으로 '예산·인프라 부족', '지역 기업체에 대한 정보 부족' 등 다양한 요소를 지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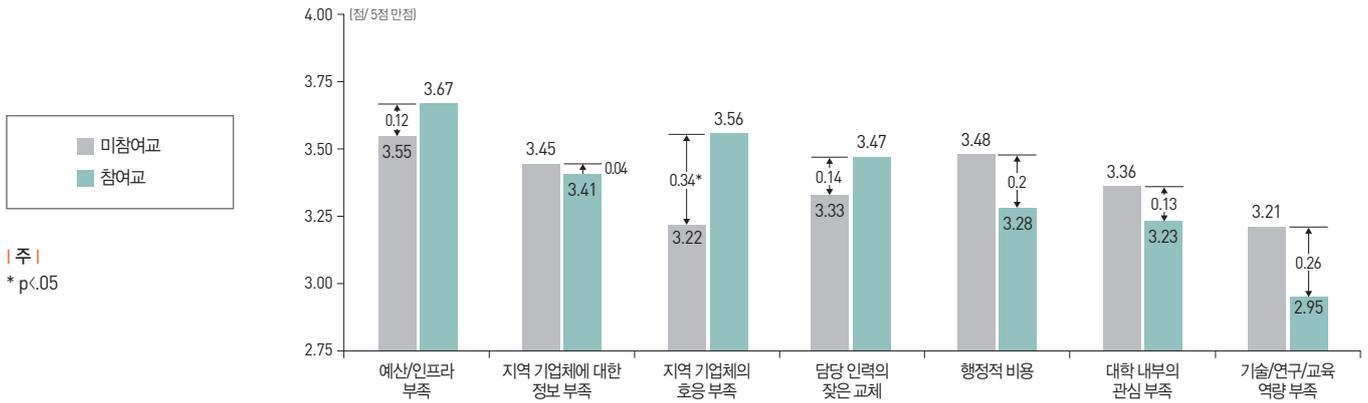
- 대학의 취업지원부서 관계자는 지역기업과 대학 간 연계의 주요 애로 요인을 '예산·인프라 부족(57.9%)', '지역 기업체에 대한 정보 부족(53.4%)', '지역 기업체의 호응 부족(47.4%)', '담당 인력의 잦은 교체(46.6%)' 등으로 인식함.

〈표 2〉 대학-지역기업 연계의 애로 요인

구분	평균	표준편차	긍정응답률
예산·인프라 부족	3.62	1.11	57.9
지역 기업체에 대한 정보 부족	3.43	1.03	53.4
지역 기업체의 호응 부족	3.41	0.94	47.4
담당 인력의 잦은 교체	3.41	1.14	46.6
행정적 비용	3.37	1.00	48.9
대학 내부의 관심 부족	3.29	1.05	40.6
기술/연구/교육 역량 부족	3.06	1.02	35.3

주 | 긍정응답률은 '동의함' 또는 '매우 동의함'에 대한 응답 비율을 합한 수치임.

- 대부분의 항목에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참여교와 미참여교 간 인식이 유사함. 단, 사업 참여교에서 '지역 기업체의 호응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더욱 강하게 인식함.



[그림 2]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 참여 여부에 따른 지역기업 연계의 애로 요인에 대한 인식 비교

04 지역기업 연계를 위한 대학의 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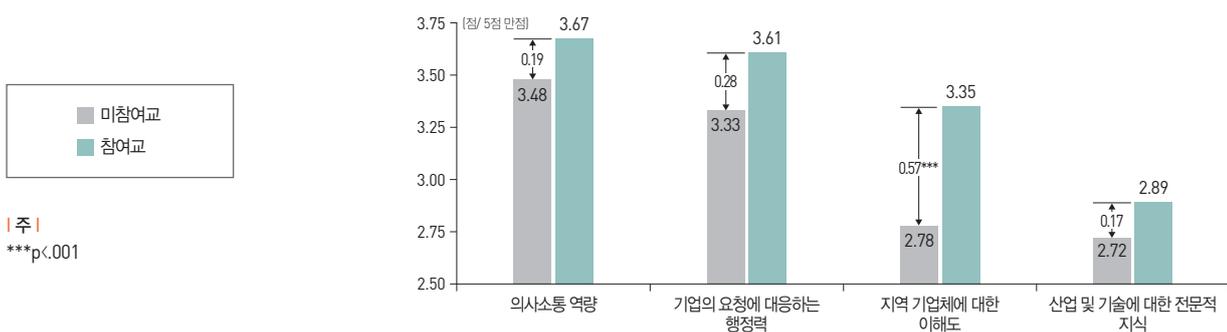
대학 취업지원부서는 조직의 '의사소통'역량은 높으나, '지역 기업체에 대한 이해'나 '산업 및 기술에 대한 지식'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인식함.

- 대학의 취업지원부서 관계자는 '지역 기업체에 대한 이해(32.3%)'와 '산업 및 기술에 대한 지식(24.1%)'에 대한 조직의 역량을 낮게 인식함.

[표 3] 지역기업 연계를 위한 대학의 역량 수준에 대한 인식

구분	평균	표준편차	동의 수준	
			긍정응답률	부정응답률
의사소통 역량	3.59	0.87	57.1	9.8
기업에 대응하는 행정력	3.49	0.96	55.6	14.3
지역 기업체에 대한 이해	3.10	0.98	32.3	22.6
산업 및 기술에 대한 전문적 지식	2.82	0.98	24.1	36.8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 참여교와 미참여교 간 조직 역량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유사하나, '지역 기업체에 대한 이해도'에 있어서는 참여교(3.35점/5.0점 만점)가 미참여교(2.78점/5.0점 만점)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을 보임.



[그림 3]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 참여 여부에 따른 대학의 역량 수준에 대한 인식 차이

05 대학 차원의 지원에 대한 인식

대학 취업지원부서 관계자는 지역 기업체와의 소통 전담 인력/조직 확충, 내부 구성원의 인적 네트워크 활용 시스템 구축 등의 측면에서 대학의 지원이 부족하다고 인식함.

- 취업지원부서에서는 지역기업과의 연계를 위해 대학 차원에서 '대학 내부의 취업 관련 인력, 조직 통합·연계(43.6%)', '행정지원(41.4%)', '기업의 요구 파악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36.1%)'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응답함.

〈표 4〉 지역기업 연계에 있어 대학의 지원 수준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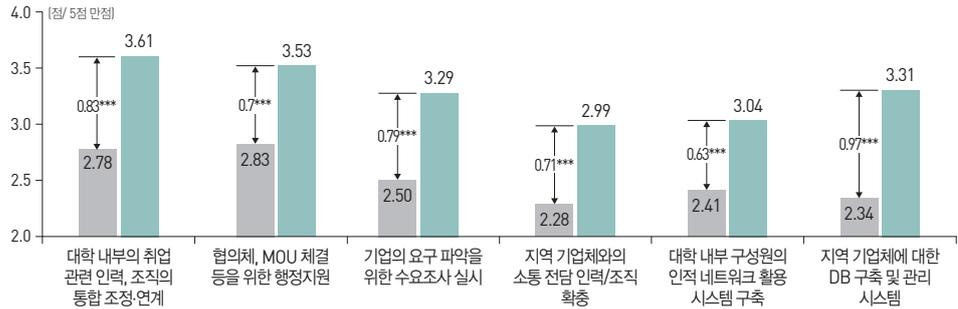
(단위: 점, %)

구분	평균	표준편차	동의 수준	
			긍정응답률	부정응답률
대학 내부의 취업 관련 인력, 조직의 통합 조정·연계	3.25	1.10	43.6	23.3
협업체, MOU 체결 등을 위한 행정지원	3.23	0.95	41.4	21.8
기업의 요구 파악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	2.95	1.12	36.1	31.6
지역 기업체에 대한 DB 구축 및 관리 시스템 체계화	2.89	1.04	27.1	32.3
대학 내부 구성원의 인적 네트워크 활용 시스템 구축	2.77	0.95	23.3	38.3
지역 기업체와의 소통 전담 인력/조직 확충	2.68	1.05	24.8	45.1

주 |

- 1) 긍정응답률은 '실행되는 편임' 또는 '매우 잘 실행됨'에 대한 응답 비율을 합한 수치임.
- 2) 부정응답률은 '실행되지 않는 편임' 또는 '전혀 실행되지 않음'에 대한 응답 비율을 합한 수치임.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 참여교가 미참여교에 비해 지역기업 연계에 있어 대학의 지원 수준이 더 높다고 인식함. 특히 '대학 내부의 취업 관련 인력, 조직 통합·연계'와 '지역 기업체에 대한 DB 구축 및 관리 시스템'에서 사업 참여 여부에 따른 인식 차이가 크게 나타남.



주 |

***p<0.001

〈그림 4〉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 참여 여부에 따른 대학의 지원에 대한 인식 차이

06 지자체 차원의 지원에 대한 인식

대학 취업지원센터 관계자는 지역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채용 수요 파악 등에 있어서 지자체의 지원이 미흡하다고 인식함.

- 대학의 취업지원부서에서는 지자체의 지원 수준이 낮다고 인식하며, '지역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21.8%)', '지역기업의 채용 수요 파악(21.1%)' 항목의 긍정응답률이 낮은 편임.

〈표 5〉 지역기업 연계에 있어 지자체의 지원 수준에 대한 인식

(단위: 점, %)

구분	평균	표준편차	동의 수준	
			긍정응답률	부정응답률
지자체 취업지원 사업 다양화	2.89	0.98	27.8	34.6
산학 간 다양한 소통 창구 마련	2.88	1.02	27.1	33.1
지역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2.79	0.94	21.8	36.1
지역기업의 채용 수요 파악	2.75	0.96	21.1	36.8

주 |

- 1) 긍정응답률은 '실행되는 편임' 또는 '매우 잘 실행됨'에 대한 응답 비율을 합한 수치임.
- 2) 부정응답률은 '실행되지 않는 편임' 또는 '전혀 실행되지 않음'에 대한 응답 비율을 합한 수치임.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2023).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운영.

URL: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young/list2.do>.

청년워크넷(2023). 청년취업진로 지원 사업 안내.

URL: <https://www.work.go.kr/jobyoung/weSchEmpConstRoom/weSchEmpConstRoomSvcInvtite.do>.

07 시사점

- 전국 일반대학의 취업지원부서는 예산·인프라 부족, 지역 기업체에 대한 정보 부족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대학-지역기업 간 연계가 어렵다고 인식함.
- 대학-지역기업 간 연계를 위한 대학 차원의 행정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대학 내부 구성원의 인적 네트워크 활용 시스템 구축이나 지역 기업체와의 소통 전담 인력 및 조직 확충 등에 대한 지원은 미흡하다고 인식함.
- 지역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이나 지역기업의 채용 수요 파악 등을 통한 지자체의 대학-지역기업 연계 지원에 대해서는 미흡한 수준이라는 인식이 높음.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 참여교는 미참여교에 비해 지역 기업체에 대한 이해도를 높게 인식하며, 대학의 지원 수준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 본 연구 결과는 대학-지역기업 간 원활한 연계를 위해 대학의 취업지원부서의 조직 역량 강화와 대학 및 지자체의 지원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